



**Good Morning
Everybody**

- 04** 진정한 나눔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 국제회계사연맹(IFAC) 차기회장 주이기 이사님

**Good Morning
Children**

- 06** 소아암인식개선 캠페인
– ‘차이’ 때문에 ‘차별’ 받지 않는
소아암 아이들을 위하여

**Good Morning
Family**

- 08** 소아암가족 미니 운동회
– “아이들에게 선물한 보물같은 하루”

**Good Morning
Sunshine Friends**

- 10** 후원자 이야기
– “내 친구 회원이”
12 한빛사랑 이야기
– “택의 자녀는 몇 명이세요?”
14 봉사자 이야기
– “아름다운 땀방울이 모이던 날”

**Good Morning
My House**

- 16** 한빛하우스를 소개합니다
18 한빛사랑하우스 이용자 후기
– “우리 가족의 힐링 하우스”

**Good Morning
Hanbit**

- 20** 한빛/후원 NEWS
22 후원자 명단
23 결산현황
24 하우스 이용현황, 물품후원내역
26 정기후원(CMS) 신청서
27 포토에세이

진정한 나눔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니 문득 처음 한빛과 인연이 닿았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언젠가 소아암NGO한빛이 주관하는 8월 행사에 자원봉사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소아암 치료 중에 있거나 치료에 성공한 환아와 가족을 초청하여 그동안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한 가족들을 위로하고 한편으론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아와 그 가족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매년 진행하는 여름 행사였습니다.

저는 그저 자원 봉사를 한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갔었는데, 실제로는 참가한 소아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망적인 태도와 믿음에 감동 받았고, 또한 자원봉사로 나선 많은 대학생들의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성경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자원 봉사를 해주려 간 것이었는데, 오히려 잊지 못할 힐링을 받고

온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자원봉사란 항상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치료방법이 많이 개발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암은 우리들에겐 극복하기 어려운 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암을 앓고 있는 어린 환아들과 옆에서 간호하고 돌보아야 하는 부모님 또는 친지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한 휴식처를 마련해 주고자, 13년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소아암 전문의이신 유철주 교수님을 중심으로 소아암NGO한빛이 설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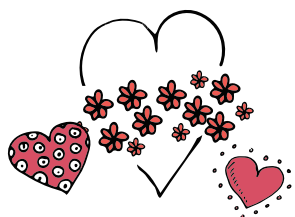
그 동안 소아암NGO한빛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

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2015년에는 두 번째 한빛사랑하우스를 마련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소아암NGO한빛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기꺼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소아암NGO한빛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많은 봉사자님들과 많은 후원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아암NGO한빛은 많은 분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회계뿐 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정하고 이를 지금까지도 부족함 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아암NGO한빛의 이러한 꾸준한 발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자원 봉사자들과 후원자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고,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관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소아암NGO한빛 이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국제회계사연맹(IFAC) 차기회장

주인기



‘차이’ 때문에 ‘차별’ 받지 않는 소아암 아이들을 위하여



이번에 우리 소아암 완치자 모임인 기린아에서는 중요한 캠페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아암 인식 개선 캠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뜻 소아암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어떤 인식을 개선한다는 걸까?”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암이라는 병을 얻은 아이들은 항암이라는 고통스런 과정을 겪고, 이 과정을 이겨내어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완치된 아이들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을 받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암을 완치한 아이가 학교에 가면 친구의 부모님들은 “병이 옮길 수 있으니까 그 친구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말거라.” 라고 자식들에게 말을 해서 친구와의 교우관계가 비틀어지거나, “그 애는 꺼림칙하더라. 그 애 암도 걸렸다면, 혹시 이상한 거 하고 다니는 거 아니니?” 라는 등 차별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아암은 성인암과는 달리, 유전이나 생활습관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린아 측에서는 이렇게 소아암을 겪었다는 한 곳 ‘차이’ 때문에 ‘차별’ 받는 소아암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캠페인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캠페인은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페인에서는 우리 기린아들과 의료진분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 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연세대학교 앞 노천극장 앞에 부스를 열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날은 가수 성시경의 콘서트로 인해 사람들이 많아 캠페인을 하기에 정말 적합했습니다. 우리들 기린아는 부스 및 장비 설치의 역할을 맡거나, 소아암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으로 고통 받는 우리 소아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소아암 아이들에게 전해줄 희망메시지를 남겨달라는 내용으로 홍보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기린아, 꿈을 드리다] 브로셔를 나누어 드리며 다재다능한 성인 완치자 기린아와 꿈을 가득 가지고 있는 소아청소년 완치자 꿈드림에 대한 홍보도 함께했습니다. 저 또한 홍보역할을 주로 하며, 지나다니시는 한 분, 한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며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기린아 분들께서도 열심히 활동해주시고, 다양하고 자세한 의료지식을 가

지고 계신 김선희 간호사 선생님을 포함한 의료진분들께서도 땀 흘려가며 홍보하고 활동해주셔서 보다 더욱 의미있는 캠페인 활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더불어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의 가슴을 울릴 소중한 메시지까지 작성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금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캠페인에서는 예쁜 식고방향제들과 드라이플라워 카드, 그리고 우리 기린아가 직접 손으로 만든 책갈피를 기부 목적으로 판매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기부금은 그동안 소아암을 겪은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기린아 모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소아암NGO한빛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부금으로 더욱 많은 소아암 치료받는 아이들이 아픈 과정 속에서 지원을 받고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캠페인으로 인하여 소아암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제대로된 소아암에 대해 알릴 수 있어 뿌듯했고 이러한 활동이 굉장히 의미 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세 암병원에서 주최되었던 이와 같은 캠페인이 또 다시 주최되기를 소망하며, 주최된다면 다시 참여 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이 반복되어 소아암에 대한 인식 개선되길 기원해봅니다.

소아암을 치료중인 아이들, 완치된 아이들이 ‘차이’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 기린아, 꿈드림 모두모두 파이팅하자!!!



김진영
(소아암NGO한빛 간사)
- 2017 소아암 가족
미니 운동회



아이들에게 선물한 보물같은 하루



저는 지난 5월 1일부터 소아암NGO한빛 간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위해 한빛사랑하우스에 처음 들어섰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가정집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느 누가 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내면서 보니 역시나 내 첫 느낌이 맞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었지만 하루를 지내든, 한 달을 지내든 모두 처음부터 함께 지낸 것처럼 진짜 가족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반가워하고 챙겼습니다. 특히 더 이상 이곳에서 지내지는 않지만 여러 번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는 분들, 보고 싶다고 안부 연락하시는 분들 모두 여기서

따뜻함을 느끼셨기에 이곳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사 후 처음으로 맡은 행사는 소아암가족 미니운동회로, 기대와 떨림이 공존하는 마음으로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2017년 6월 3일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모인 봉사자들의 이야기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대부고 학생들, 연세대 봉사 동아리인 멘토스, 그리고 소아암이라는 병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사회에서 활동 중인 기린아를 포함한 봉사자들은 운동회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달아 줄 명찰과 스티커를 준비하고, 책상을 나르



고, 돛자리를 펴며 설렘 속에서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쾌청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씨, 운동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활기참, 아이들의 웃음소리, 장난치는 소리들이 모두 운동회가 주는 즐거움인 것 같았습니다. 오전 11시, 80여 명의 가족들이 팀별로 모여 줄을 서고, 유철주 교수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드디어 운동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에서 바라본 가족들의 표정은 기대에 찬 밝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작지만 다부진 목소리로 포박포박 선서문을 읽어 내려가는 아이들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귀에 들려오자 몽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그날에 따라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소아암 아이들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가 웃음으로 물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슴 깊숙이에서부터 들었습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운동회의 분위기는 고조되어갔습니다.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과 그를 돕는 봉사자들의 눈길과 손길들이 하나로 화합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이기기 위해 긴장된 모습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아이들, 즐거워하는 부모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기와 싸우며 고기를 굽고 점심을 준비하는 스태프들을 보니 날씨의 더위도,

분주함도 잊혀졌습니다.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모든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한빛에서 맡아서 준비했던 첫 번째 행사였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즐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고하셨다'는 한마디 말보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이, 멀리서 즐겁게 웃는 웃음소리가 나에게 더 큰 칭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벤트 같은 하루를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 같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느새 내 시선은 내년과 그 후년까지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시간을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기분좋은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 친구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회원이의 친구 백영종입니다. 김희원 친구 일동인 길민선, 김찬혁, 박예슬, 백영종, 백지원, 신혜형, 안성민, 유진이, 장하영, 정한걸, 조효린, 주초의 이상 12명의 이름으로 소아암NGO한빛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기부를 하게 된 조금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원이를 처음 만났던 건 고3이 막 시작된 봄이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 저와 열심히 붙어다니던 혜형이와 민선이는 입시로 지쳐있던 시기에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들을 주축으로 한명 두명 어울리는 친구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회원이도 그 중 한명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죽이 잘 맞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땐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고 놀 수 있는 시간만 생기면 어디든지 돌아다니고 구경하며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끝도 없는 공부에 지치기도 했지만 뒤돌아보니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 시절의 내가 참 행복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들은 함께했고, 수능을 본 날에도 우린 함께 저녁을 먹으며 채점도 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면서 잠시동안 못 만나긴 했지만 모든 입시가 끝나고 놀이공원이나 평소에 못 가봤던 곳을 다니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부터 조금씩 회원이와 연락을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고1때부터 악성빈혈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결석도 거의 하지 않고 늘 밝고 환하게 웃는 회원이를 보며 아픈아이란 걸 실감하진 못했었습니다. 결국 회원이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원이가 TV에서나 보던 급성백혈병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투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따금씩 연락만 할 수 있었고 제가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말해주자 너무 잘 어울린다고 축하의 말도 건네주었습니다.

저도 회원이에게 늦게 피운 꽃이 더 예쁠거라고 말해주었고 요즘 1년은 늦은 것도 아니니까 꼭 내년엔 같이 대학에 다니면서 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에서 다시 회원이를 만났습니다. 고3 그 교실에



서 처음 봤을 때 그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회원이는 머리도 단정히 묶고 화장도 예쁘게하고 나타나 함께 졸업식을 하며 웃고 떠들면서 저장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회원이가 이제 다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쁘고 밝은 모습이었어서 내심 마음속으로도 안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졸업식 이후 드문드문 이어지던 연락이 이제는 거의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혜형이를 통해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당장 만나러 가겠다고 했지만 찾아갈 순 없었습니다. 회원이가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오겠다는 친구들을 다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만날 순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병이 다 나아서 다시 뭉칠 수 있을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봄이 올 때쯤 아침에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원이가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날 강의가 끝나자마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옆에서 같이 웃고 떠들며 힘든 고3시절을 함께 보낸 내 소중한 친구 회원이를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제겐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 자리에 없는 회원이가 더 생각이나서 너무나도 슬펐고, 같이 못해본 일이 너무 많은데 아직 너무 이르다는 생각도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회원이의 곁을 내내 지켜준 우리 친구들은 떠나는 동안과 장지에 갈 때까지도 함께였고 그렇게 회원이와 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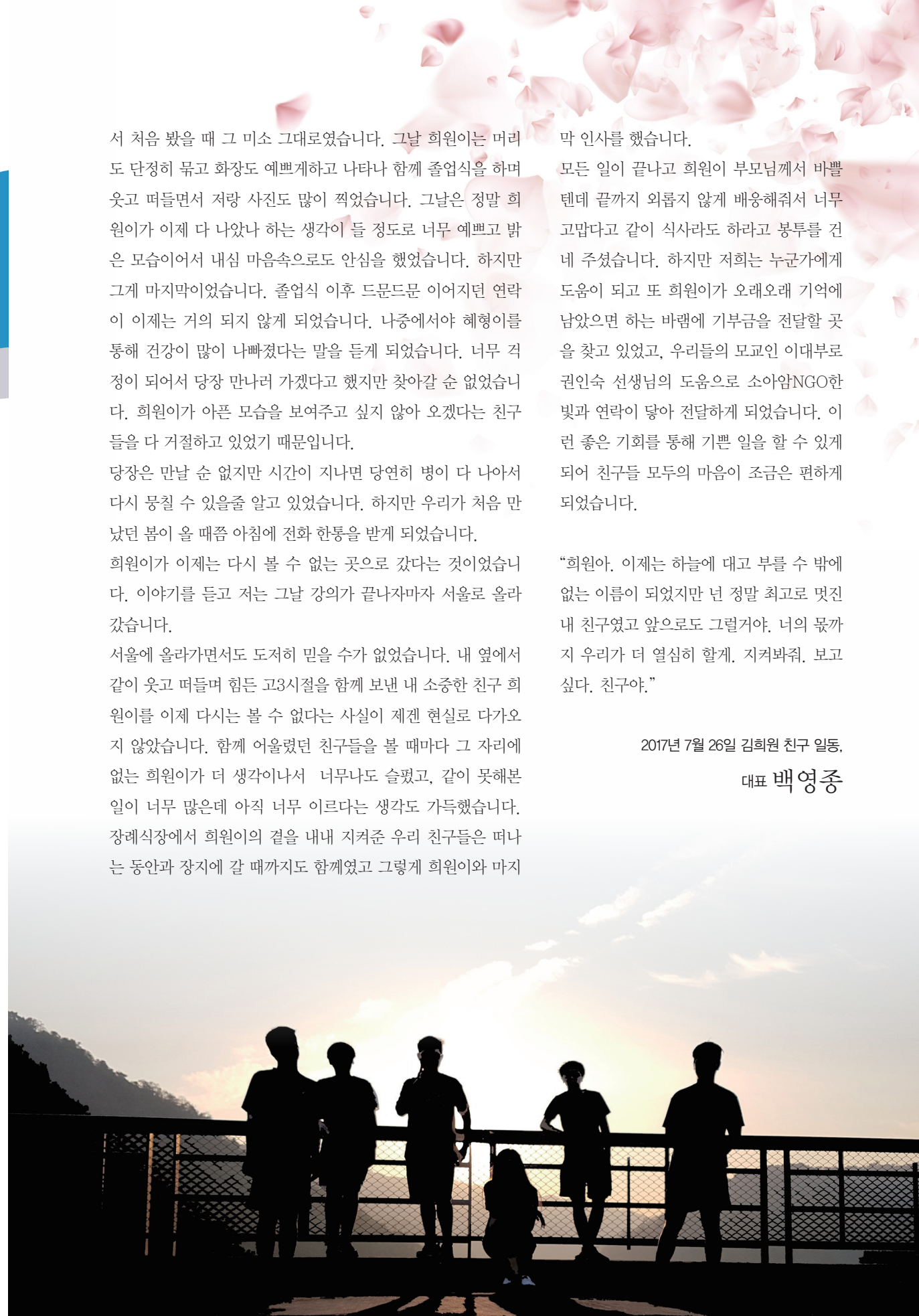
막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회원이 부모님께서 바쁘게 텐데 끝까지 외롭지 않게 배웅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같이 식사라도 하라고 봉투를 건네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회원이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에 기부금을 전달할 곳을 찾고 있었고, 우리들의 모교인 이대부로 권인숙 선생님의 도움으로 소아암NGO한빛과 연락이 닿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기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친구들 모두의 마음이 조금은 편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아, 이제는 하늘에 대고 부를 수 밖에 없는 이름이 되었지만 넌 정말 최고로 멋진 내 친구였고 앞으로도 그럴거야. 너의 뭉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할게. 지켜봐줘. 보고 싶다. 친구야.”

2017년 7월 26일 김희원 친구 일동,

대표 백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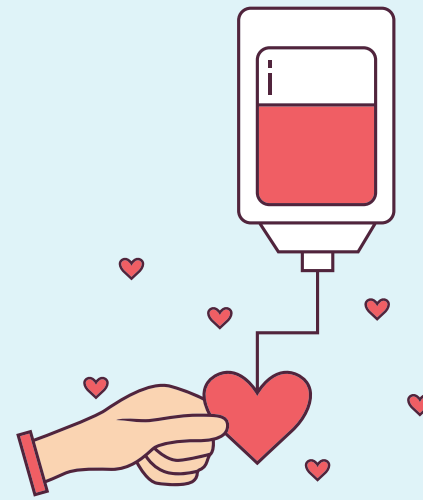
배길선
(한빛사랑하우스 관리위원)

“자녀가 몇 명이세요?”

세탁소에서 몇 번 눈인사를 나눴던 이웃이 불쑥 내게 물었습니다. 두 명이라고 해야 할지 세 명이라고 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 질문이 세상에서 나는 제일 어렵습니다. 나는 아들만 셋이었고 그 중에서도 큰 아들 중수는 나에게 든든한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중수가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 위해 집을 떠나고 얼마 후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아파왔습니다. 조바심에 바로 병원에 데려가자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다발성 전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이미 간과 신장에까지 퍼져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인 내가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고 싶었지만 큰 아들 중수는 결국 두 달만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뒤 나는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아이에 관해 물을까봐 동네 마트에 조차 발길을 끊었고 그렇게 집 안에 갇혀 살기를 자처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잊으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내 가슴속을 파고들기만 하는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멍하니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때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 모임에서 병원 봉사활동을 권유받았습니다. 불현 듯 암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겁만 내던 내 모습이 생각이 나서 내 경험을 다른 환자 부모에게 전해주고 나와 같은 후회를 막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한 봉사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예닐곱 살짜리 아이가 항암치료를 시작하면 토하고 마르기 일쑤가 되는데 이를 지켜보는 부모는 말 그대로 피눈물이 나고 애가 타 들어갑니다. 하지만 암에 걸린 자녀를 키워 본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병원에 안 가겠다고 앙탈을 부리고, 애써 차린 밥을 몇 숟 뜨지도 않고 온종일 실랑이를 하고 결국엔 맘에 없는 말을 내뱉곤 후회하고 가슴아파하는 누구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들의 곁을 내가 지켜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소아암·백혈병 병동 자원봉사, 간식 배달 등 매주, 매달, 철이 바뀌어가도 나는 계속 그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 아들 중수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사이 의료진과 이야기할 시간도 많아졌는데, 한 의사 분께서 “암을 이기기 위해 치료도 치료지만 아이들과 가족들이 편히 쉬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램으로 시작된 한빛사랑하우스는 2004년 마침내 창천동에 그 둥지를 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잔치국수해주세요.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요~”

쿵쿵쿵 계단을 힘차게 오르는 동후는 오자마자 신이 납니다. 지난 가을 감기인 줄 알고 찾아간 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서울로 오게 되면서 하우스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동후는 하우스에 오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전 하우스가 좋아요. 시골 우리 집보다 훨씬 넓어요. 와! 나는 집이 두 개예요. 시골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하하” 항암이라는 힘든 시기를 견디는 아이들과 부모를 더 가까이에서 돕기로 마음을 먹고 지내던 집을 정리하고 거처를 아예 하우스로 옮겨서 24시간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잘 치료되고, 건강을 찾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기뻐합니다.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먼저 떠나야 하는 아이를 만나게 되는 슬픈날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그 부모를 위로해줍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요? 우리 아이 만지고 싶어요.” 나 역시도 여전히 지금도 중수가 그립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가슴 한편에 아픈 상처를 품고 살고 있는 우리이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글이 서툰 베트남 사람인 동후 엄마가 서툰 한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또 손을 잡아주셨을 때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같습니다. 저도 한국 생활 잘 적응해서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댁의 자녀는 몇 명인가요?

요즘은 그래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동후, 승훈, 민규, 예진...”

하우스를 통해 만난 아이들 모두가 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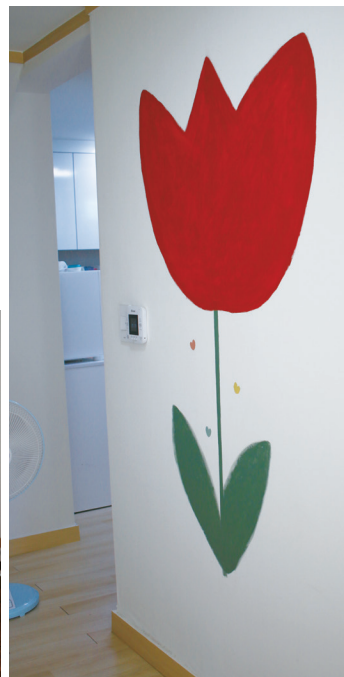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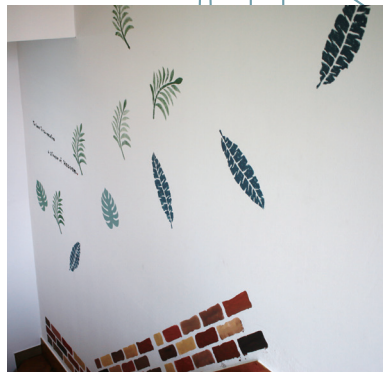
“전 하우스가 좋아요.
시골 우리 집보다 훨씬 넓어요.
와! 나는 집이 두 개예요.
시골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하하



아름다운 땀방울이 모이던 날

5월은 여름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대학생 서포터즈 회원들이 소아암환아의 하우스를 더 깨끗하고 예쁜 곳으로 만들어 주고자 모였습니다. 주말임에도 한 명도 빠짐없이 모여 예정되었던 시간을 훌쩍 뛰어넘으며 열정을 보여준 멋진 청년들 덕분에 사랑하우스가 더 예뻐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소, 업무와 상관없이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활동에 참여해 주신 한국조혈 모세포은행협회 대학생 서포터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꾸며주신 공간속에서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빛사랑하우스를 소개합니다.(1)

이곳은 소아암 아이들의 한빛하우스입니다.

2004년 10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곳의 문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아암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옆에서 24시간 간병을 하며 지키던 엄마들은 병원에서 잠깐식 퇴원할 때마다 집으로 가거나 집이 먼 사람들은 병원 근처의 모텔에서 지내는 생활에 너무 지쳐있었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했던 병원 의료진들과 소아암환아 부모님회의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생긴 한빛하우스가 생긴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층 건물 중 한 층만 세를 얻어 시작한 한빛하우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층 한층을 늘려가더니 결국 전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빛하우스는 지금도 이 곳이 필요한 소아암 아이들에게 기꺼이 집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한빛하우스가 필요하면 문을 두드려주세요. 늘 같은 자리에서 소아암 아이들과 함께하며 다시 암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늘 한결 같은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다.

한빛사랑하우스 이용신청

소아암 환아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하우스는 창천동과 연희동에 각 1개씩 총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빛사랑하우스의 이용을 원하시는 소아암 가족께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세요.



신규신청

연세암병원 소아암코디네이터
(02-2227-4175)



확인

코디네이터 이용 승인
(개별 유선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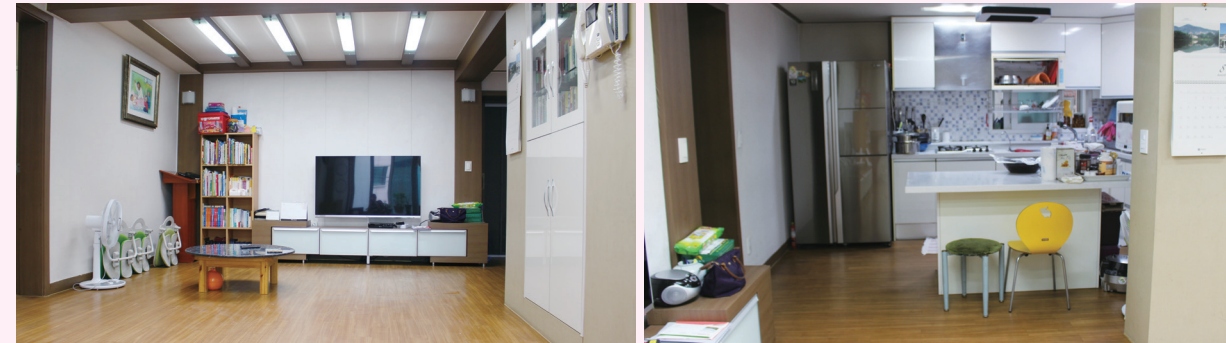
입주

관리위원

1층(외국인 환아 전용 / Room 개수 5개)



2층(소아암NGO한빛 사무국 및 응접실)



3층(한국 환아 전용 / Room갯수 : 5개)



우리 가족의 힐링하우스

2017년 1월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찾아갔던 병원에서 들었던 백혈병 진단에 우리 가족은 큰 충격과 함께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온 가족이 베트남에 거주한 지 4년째가 되어가며 이제 제법 자리도 잡아가고 아이들도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든 비보에 일단 무작정 아이를 살리고자 아이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아이는 바로 병원에서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입원치료를 하던 중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께서 병원근처에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쉼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편과 큰아이는 여전히 베트남에 있었고 친정도 경남 진해라서 사실 병원을 나가면 있을 곳이 마땅하지 않아 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남겨진 큰아이가 엄마 없이 아빠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면 한국으로 아예 다시 이민을 와야 할지도 몰라 쉽사리 집을 얻기도 힘든 상황에서의 쉼터는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했고 쉼터에서의 생활을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한국에 거처할 집이 없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사정상 당장 집을 얻기도 힘든 상황이었던지라 한빛하우스는 아이와 함께 거처할 수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고, 같이 거주하게 된 다른 환아부모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소아암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갖을 수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도 한 명 없는 서울에서의 생활이 걱정스러웠던 저에게 한빛하우스는 즐거운 소통의 공간이 되어주었습니다.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후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주위의 편견과 시선을 의식하며 외롭게 보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빛하우스에서 지내면서 환아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며 신경써주시는 권사님의 사랑과 하우스를 이용하는 환아와 부모님들과 한술밥을 먹으며 친구처럼 때로는 언니나 동생처럼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여주며 지낼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처음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너무나도 당황하고 놀라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멍한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내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도 몰랐고 암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던 지라 3년이라는 긴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도 나지 않은채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내 아이에게 이런 큰병이 걸렸을까를 자책하고 있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너의 옆에 항상 있으니 빨리 낫을 수 있을거라는 희망과 평안을 아이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리기에 아프다는 것만 느끼는 아이는 엄마의 미소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더 많이 웃어주고 뽀뽀해주며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많이 남아있지만 한빛하우스는 더 이상 이 넓은 서울 땅에서 혼자라는 두려움 대신 우리 모자를 따뜻이 안아주는 넓은 가슴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희망을 가슴에 더 깊이 새기며 아이를 더욱 사랑하며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따뜻하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주시는 권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든 항암기간의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힐링하우스가 되어준 한빛사랑하우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빛 NEWS



2017 소아암가족 미니운동회

매년 여름이 시작되기전에 함께 모여 미니운동회를 진행하는데 올해에는 6/3(토)에 100여명의 소아암가족, 연세암병원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함께하였습니다. 장애물달리기, 미션게임, 바비큐파티 등을 진행하며 오랜 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었습니다.

2017년 온라인 모금 “해피빈” 운영상황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모금채널 “해피빈”을 통해 KT&G 임직원 모금 연계, 더블 프로젝트 선정(매칭그랜드 모금), 우수후기 단체 선정, 정기기부 프로모션 단체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며 누적 모금액 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피빈



네이버 N'gels 클럽 나눔 캠페인 선정

네이버 임직원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인 “네이버 Ngels 기금”의 공모사업에 한빛사랑하우스 운영을 주제로 지원하여 최종 선정되어 지원금 996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한 기금을 모아주신 네이버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한빛사랑하우스를 위해 더욱 고민하며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규모 사회복지기관 개보수 지원사업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한 2017 소규모 복지기관 중심 지원사업 “작은 기관과 함께 나누는 희망 드림(Dream)” 사업중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 기탁”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에 따른 지원금은 2,000만원으로 이 금액은 사랑하우스의 외부보수 공사를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소아암환아 치료비 지원

2017년 상반기동안 TMP(연세대학교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월드휴먼브리지, 김민우&창천교회의 지원으로 3명의 소아암 환아에게 8차례에 걸쳐 5,486,810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더 많은 소아암환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따끈따끈 후원 NEWS

연세암병원 기쁨나눔 행사 전달식

지난 2016년 연말에 진행된 세브란스 기쁨나눔행사에서 지원대상으로 한빛사랑하우스가 선정되어 에어컨, 일체형 침대 등 약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았습니다.



연세의료원 연말 예매 현금 후원

연세의료원 원목실에서는 2016년 연말감사예배를 드리며 모아진 현금 4,923,340원을 소아암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후원해 주셨습니다.

2017 이삭회 바자회 수익금 후원

이삭회(이화여자대학교 부속 유치원 학부모 봉사단체)에서는 작년에 이어 바자회 수익금 23,000,000원을 소아암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후원해주셨습니다. 바자회를 위해 애써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린아 미술작품 전시회 및 인식개선 캠페인 수익금 후원

기린아(소아암 완치자 성인모임)에서는 연세암병원에서의 소아암환아 미술작품 전시회와 성시경콘서트가 열리는 연세대학교내에서 소아암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행사에서 모아진 소중한 후원금(3,720,820원)을 우리 단체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 물품 후원

한국소아암재단에서는 쌀, 아기이불세트, 아동/성인용 마스크, 중고 노트북, 과자 등 한빛사랑하우스와 하우스에 머무는 소아암가족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생수 후원

롯데칠성사의 후원을 통해 1년간 분기마다 생수 30박스(1박스 20개)를 후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해주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아톰 물품 후원

특허받은 색칠하는 조립형 스티커북 ‘뉴칼라주 이야기’와 색연필 50세트를 한빛사랑하우스에 머무는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회원

(2017년 1월~6월 후원자)



1. 정기후원회원

5천원	강미영, 강영린, 김순호, 김윤영, 김은채, 김희은, 목미수, 박선미, 박정순, 배정임, 변미라, 오미영, 이선희, 이수진, 이희경, 조미영, 조은희, 한유영
1만원	강나영(이순애), 강보성(강성진), 광규근, 구분미, 권수영, 권영준, 김경숙, 김두진, 김선정, 김영숙, 김은경, 김은수, 김재훈, 김지선, 김진아, 김종선, 김해웅, 김혜숙, 김경미, 김경민, 김남현, 김영복, 김영은, 김영희, 김유민, 김종수, 김진국(배봉선), 김주희, 김진영, 김준희, 김현이, 김현정, 김혜진, 김희진, 류석현, 모민희, 목현희, 무명, 문숙희, 문경순, 박경자, 박금분, 박미자, 박선희, 박우석, 박은재, 박정선, 박진배, 박태선, 박미나, 박선정, 박영란, 박옥선, 박은선, 박은성, 방사무엘연상, 방인숙, 배길선, 백기범, 백윤수, 백일영, 변은숙, 서진근, 서연자, 석미영, 성정숙, 성세희, 손유진, 송기원, 송미란, 송수경, 송현주, 신혜경, 심소정, 안상민, 양재승, 오한나, 우남칠, 원호성, 유경화, 유성호, 유연숙, 유기성, 유주영, 윤성현, 윤장용, 윤순애, 윤옥진, 이광환, 이숙현, 이은정, 이정숙, 이종숙, 이종호, 이주현, 이진호, 이철수, 이감우(이종엽), 이경재, 이규강, 이규현, 이동구, 이승환, 이영혁, 이영희, 이은우(이종엽), 이인숙, 이정순, 인수진, 장문수, 정규성, 조길수, 조형희, 조미영, 지명희, 진미선, 최문근, 최병숙, 한경미, 한수영, 현승준, 현도윤, 현창룡, 홍종란, 홍영숙, 황은화, 황정원, 황인희, 황한별
2만원	강유미, 강이안, 김왕배, 김현숙, 김현정, 김나원, 김선화, 김영자, 김재실, 김지영, 김혜경, 김혜양, 나윤경, 무명, 박은영, 박현아, 박현우, 박희옥, 배석진, 서연제(서정혁), 송민정, 양혜란, 유기옥, 윤수한, 윤정애, 이상호, 이난향, 이명임, 이배환, 이유미, 이윤선, 이지순, 이진희, 이초지, 이현빈, 임자선, 장미경, 장은조, 장진희, 정광호, 정인호, 정현근, 조달남, 최영애, 최인경, 하미경, 한재원, 한수영, 한정화
3만원	기초자, 고애란, 길정은, 김경숙, 김경희, 김광재(최은희), 김근주, 김현진, 김홍익, 박성희, 박유선, 박홍이, 유재덕, 이승순
4만원	남윤성
5만원	강공임, 강창무, 김선희, 동아스지, 신윤정, 신현주, 윤공심, 정동월, 창천교회 나옴이 선교회
10만원	강명선, 권승연, 기쁜우리교회, 김남현, 김진희, 박승원, 윤환용(COUK), 이유빈, 이지은
15만원	정만희
20만원	김성경, 문현철, 산돌교회, 이지은, (주)브레인씨앤씨
25만원	배길선
50만원	배명자, 이은주
100만원	유철주, 이은경

2. 일시후원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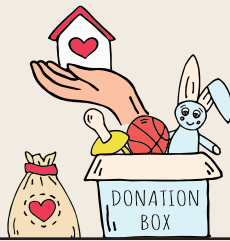
금액	후원자명	금액	후원자명
20,000원	강동윤	660,000원	윤환용(COU korea)
70,000원	이승현	1,332,620원	기린아(사진전)
50,000원	송은주병원봉사회	1,435,000원	배길선
50,000원	연세암병원 외래항암물치료센터	2,388,200원	기린아(캠페인)
50,000원	주원엄마	3,000,000원	전은배
100,000원	HART	4,923,340원	연세의료원
300,000원	백은비	5,000,000원	김민석
300,000원	꿈꾸는뿌리카페	8,223,000원	김정민
500,000원	희원이친구		



2017년 상반기 소아암NGO 결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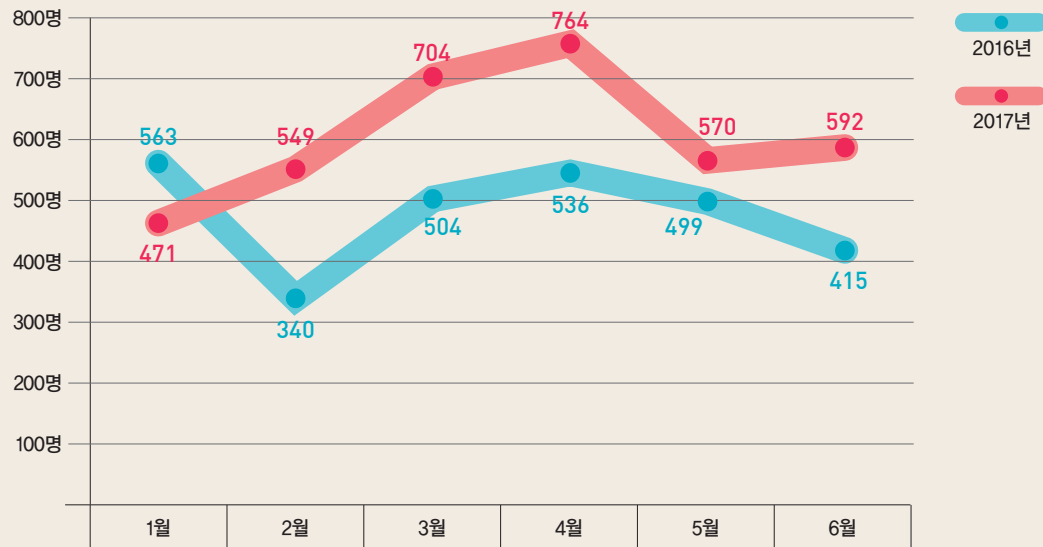
(2017.01.01~2017.06.30)

계정과목	결산액	계정과목	결산액
세입		세출	
1. 전년 이월금	75,135,156	1. 소아암 NGO 한빛 사무국 운영	
전년이월금 소계	75,135,156	1) 인건비	30,896,987
2. 후원금 수입		2) 운영비	3,023,198
1) 정기후원		3) 소식지 제작 및 발송	3,470,561
1-1) CMS후원	27,896,550	4)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0
1-2) 계좌이체 후원	12,401,000	5) 후원 개발 및 관리	1,274,688
2) 현물후원		소아암NGO한빛 사무국 소계	38,665,434
3) 특별후원		2.한빛사랑하우스운영(소아암센터)	
3-1) 하우스 이용자 후원	32,275,487	1) 공동운영비	
3-2) 단체후원	12,705,960	1-1) 인건비	7,900,000
3-3) 일시후원	20,581,200	1-2)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	18,735,616
3-4) 해피빈	32,904,500	1-3) 정수기렌탈요금	685,800
4) 지정후원		2) 한빛하우스(창천동)운영	
4-1) 소아암환아치료비후원	0	2-1) 가스요금	3,553,590
후원금 소계	138,764,697	2-2) 방송수신요금	150,440
3. 잡수입		2-3) 방역요금	720,000
1) 이자수입	34,355	2-4) 전기요금	1,613,040
2) 기타잡수입	482,397	2-5) 수도요금	687,710
잡수입 소계	516,752	2-6) 인터넷 및 전화요금	380,580
		2-7) 시설개보수비	0
		2-8) 재산세	0
		3) 사랑하우스(연희동) 운영	
		3-1) 가스요금	1,710,830
		3-2) 방송수신요금	247,460
		3-3) 방역요금	636,000
		3-4) 전기요금	578,840
		3-5) 수도요금	431,620
		3-6) 인터넷요금	124,140
		3-7) 시설개보수비	570,000
		3-8) 재산세	0
		4) 사랑하우스 매입	53,830,438
		한빛사랑하우스운영 소계	92,556,104
		3. 치료비지원사업	5,486,810
		치료비지원사업 소계	5,486,810
		4. 잡지출	1,369,920
		잡지출 소계	1,369,920
		5.소아암환아지원사업	
		1) 완치자지원사업(기린아)	0
		2) 소아암가족지원사업(오해피데이,소식지)	2,402,564
		소아암환아지원사업	2,402,564
세입합계	214,416,605	세출합계	140,480,832
결산 잔액		73,935,773	



하우스 이용현황, 물품후원내역

1. 2017년 상반기 한빛사랑하우스 이용현황 (단위:일별 실인원 합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환아	193명	213명	274명	299명	240명	270명	1,489명
보호자	278명	336명	430명	465명	330명	322명	2,161명
합계	471명	549명	704명	764명	570명	592명	3,650명

2. 2017년 상반기 한빛사랑하우스 후원물품 내역

1월	본사랑(상품권/분죽 50개,쌀,김치,치킨), 삼성생명(좌식의자, 퍼실세제, 주방세제), 굴 6box(강여민), 쌀 40kg(이빛나), 사과 1box(이예림)
2월	본사랑(상품권/분죽 50개,쌀,김치,치킨), 삼성생명(포도싸유, 참기름,참깨), 참치,햄(박채영), 쌀 40kg(이빛나)
3월	본사랑(상품권/분죽 55개,쌀,김치,치킨), 삼성생명(퍼실세제, 주방세제), 쌀 20kg(소아암재단), 오분도쌀 20kg(수영), 쌀 40kg(이빛나)
4월	본사랑(상품권/분죽 50개,쌀,김치,치킨), 삼성생명(퍼실세제, 주방세제), 유아용이불 12세트(소아암재단), 쌀 20kg(소아암재단), 쌀 40kg(이빛나)
5월	본사랑(상품권/분죽 50개,쌀,김치,치킨), 삼성생명(선풍기2대, 피죤), 쌀 20kg(소아암재단), 쌀 40kg(이빛나), 쌀 20kg(박건희)
6월	본사랑(상품권/분죽 50개,쌀,김치,치킨), 삼성생명(퍼실세제, 섬유유연제), 쌀 20kg(소아암재단), 쌀 40kg(이빛나)

“

소아암 아이들의
썬샤인 프렌즈가 되어주세요

-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

2004년에 설립된 소아암NGO한빛은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NGO)입니다.

- 한빛은 병원 가까이에 한빛하우스와 사랑하우스를 마련하여 소아암 아이들의 통원 치료를 지원합니다.
- 한빛은 치료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소아암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한빛은 학습지도가 필요한 소아암 아이들에게 학습봉사자를 1:1로 연계하여 교육 및 멘토링 활동을 지원합니다.
- 한빛은 소아암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미술치료, 나들이프로그램, 여름캠프, 가족운동회, 송년잔치 등의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합니다.

”



회원 형태

개인후원자	매달 CMS 및 계좌이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단체후원자	매달 혹은 일시적으로 단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물품후원자	한빛사랑하우스에 필요한 물품, 식재료, 생필품 등을 후원해 주시는 분

후원 방법

① CMS 납부

홈페이지 가입	메인페이지 [후원하기] 혹은 [후원현황→후원신청→정기후원] 입력후 저장
후원신청서 작성	소식지내 [CMS 후원신청서] 작성 후 FAX, E-mail, 우편으로 발송
전화 가입	소아암NGO한빛 사무국으로 전화하여 가입신청을 요청

② 계좌이체 납부

은행 계좌이체는 본인이 직접 거래 은행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아래의 계좌로 후원금 입금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안내	우리은행 1006-001-303251 한빛사랑후원회
--------	------------------------------

③ 물품후원

한빛사랑하우스에 후원하고자 하는 물품을 직접 하단의 하우스 주소로 보내주세요.

소아암NGO한빛

주 소 : (03782)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11길 55 (창천동 53-60) 2층

연락처 : Tel : 02-3142-0675 / Fax : 02-3142-0670 / E-mail : hanbit_2004@naver.com

※ '썬샤인 프렌즈'는 소아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빛의 후원자입니다.



정기후원(CMS) 신청서

■ 회원 정보

회원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단체)		
성명			직장(소속)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후원 금액

월 정기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50,000원	<input type="checkbox"/> 3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CMS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 CMS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효성CMS, 금융기관, 통신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고객센터 운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되며 후원자정보는 공익을 위해 타 NPO단체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내용(약관)에 동의하며,

소아암NGO한빛의 정기후원(CMS출금이체)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웃음

당신을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2017년 6월, 올해도 어김없이 소아암가족들이 한데모여 즐거운 운동회를 했습니다.

기분 좋은 햇살과 재미난 게임 그리고 맛있는 바비큐까지!

참석한 모두 웃음과 미소가 끊이지 않는 즐거운 하루를 선물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웃음 짓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두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한 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